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애육원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마음껏 뛰놀고있던 귀여운 어린이들이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었다.

아이들을 한품에 꼭 안으시고 한동안 애들의 불을 따듯이 쓰다듬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살이나, 아픈데는 없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었다.

꿈결에도 그리운 육친의 사랑과 정을 어린 가슴에 받아안은 아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노래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를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따라 고운 옷도 입혀주시고 맛있는 사랑, 과자, 물고기와 과일, 꿀도 보내주시어 세상에 부럼없다고,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면 아이들은 목청껏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이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앞

날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육 및 교양조건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육아원을 돌아보시었다.

애기방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자는 애기들의 모양을 웃음속에 보시면서 태어난지 얼마나 되였는가를 물어주시었고 놀이장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시고서는 말도 시켜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세쌍둥이들과 마주앉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쌍둥이들이 태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방에 들리시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는가를 알아보시고 육아원에서 애육원에서처럼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고있는데 대해 만족해하시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불이 오동오동하다고 하시면서 올해부터 그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시겠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 애육원의 아이들에게 고기, 물고기는 물론 영양가 높은 꽃감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한 인민군부대들에 꽃감을 마련하여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맡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

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 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육아원, 애육원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시어 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법적으로 담보되어있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각 도와 직할시들에 육아원, 애육원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파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수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

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아이들의 보육과 지능개발, 체력단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려주시겠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 도와 직할시들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먼저 본보기를 정하고 그를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관을 대를 이어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선거자대회 각지 선거구들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선거자대회가 전제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련일 진행되고있다.

지난 3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제일먼저 추대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에 이어 평양과 신의주시, 강계시, 사리원시, 청진시, 함흥시, 남포시 등의 선거구들과 무력기관들에 조직된 선거구들에서 선거자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들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대적인 신뢰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되시었다.

대회들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

가건설사상과 불멸의 건국업적을 천제만세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정견을 반석같이 다져나간데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휴훈대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찬탄군민의 다함없는 신뢰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파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들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명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어 우리 공화국

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게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불멸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우리 공화국의 통성변영을 위한 만단담보를 마련하시였으며 적들과의 전면대결전에서 통쾌한 승리를 안아오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시어 조국방위에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락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향적국민을 열어나가

고있으며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자주와 정의의 기치높고 선군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 승리와 변영의 시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들에서는 전체 선거자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대한 지지찬동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들에서 보고자들은 천만국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절한 소망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으며 토론자들과 모든 선거자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

자로 높이 추대한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선군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 승리와 변영의 시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들에서는 전체 선거자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대한 지지찬동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1월 24일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2월 16일은 조선로동당 창설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대원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2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의 모든 성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대원수님을 깊이 회고하면서 그이의 존함을 더욱 빛내일 일념에 충만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과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고 세계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발전통부화시키는데서 이룩하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그이의 사상을 체득하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만

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교과서이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은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과 그이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준비위원회 집행서기들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총서기 미하일 뱌첸코,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트리 코스첸코,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볼리슈크가 선출되였다.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4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파키스탄 정당, 단체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 파키스탄 아와 미민족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 바쉬르 잔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 인류자주위업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 아와 미민족당소속 국회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 말호트라가, 부위원장으로는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 사히다 파지라트가, 서기장으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메드 안사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것로 하였다.

한편 로씨야, 이탈리아, 도이칠란드, 캄보쟈, 메히코, 파지끼스탄, 몽골, 베루, 파키스탄, 에집트, 수리아, 프랑스, 단마르크, 쿠웨이트, 에티오피아, 쓰르비아, 네팔, 로르니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르니아, 파지끼스탄, 방글라데슈에서 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르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셀레 올레아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로르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와 전체당원들은 그이께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의 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그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파지끼스탄판공산당 위원장 세. 야브돌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사에 일찌기 없었던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그 위력으로 엄혹한 난국을 맞아나가지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군인들속에서 발휘된 혁명정신을 전체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어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 조 위원장 엘. 자한기르 칸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2월 16일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에 걸쳐서 가장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을 지니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향적국민을 마련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